

예술 마을 17월의 새로 나온 책

이 지면은 매월 발간되는 새 책 소식을 독자들에게 정보로 제공하고, 아울러 불황의 출판계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생존전략 - 글쓰기의 힘

이번에 출간된 '글쓰기의 힘'은 인터넷이 일반화된 후 역설적으로 중요해진 글쓰기를 다각도로 살펴본다. 이 책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새롭게 발견된 글쓰기의 가치를 주목하고, 시대가 원하는 글쓰기의 실제와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김용석 외 지음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발행



만화는 표현이야!

이 책은 기능을 강조하는 책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원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기획하여 만들어졌다. 따라서 만화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싶지만, 만화에 대한 이해나 교재의 부족으로 아쉬워했던 교사들에게도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안수철 지음 / 김민태 그림 / 청년사 발행



피나 바우쉬-두려움에 맞선 춤사위

현대 무용계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리는 세계적인 안무가 피나 바우쉬. 이 책은 탄츠테아터와 작품 해설뿐 아니라 피나 바우쉬의 성격 및 사생활, 무용수들과의 관계, 공연에 얽힌 이야기 등 그간 알 수 없었던 개인적인 측면까지 충실하게 담고 있는데 주목할 만하다.
요헨 슈미트 지음 / 이준서·임미오 옮김 / 을유문화사 발행



정간보로 읽는 옛 노래

이 책은 한국음악학자인 저자가 고전시기를 전공하는 국문과 학부 및 대학원생들을 위해 '알고 넓게' 쓴 정간보 입문서다. 국문학도를 독자로 설정한 만큼 저자는 선율과 양식 등의 분석은 가급적 삼가고, '악보'라는 약호 체계 가운데 특별한 음악적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리듬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김세중 지음 / 도서출판 예술 발행



사과도둑 일라

전래동화를 보는 듯한 친근함과 추리소설을 읽는 듯한 재미가 동시에 느껴지는 흥미롭고 교육적인 동화이다. 착하고 순박한 머슴 아이 일라가 떡갈나무 속 세상으로 신비한 사과를 구하려 떠나는 이야기로 저학년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김주현 지음 / 이지선 그림 / 정개구리 발행



깜빡돌리오 언덕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다 - '행복한 오기사의 스케치 여행'

이 책은 정통 스케치 형식의 그림과 키툼을 조합한 여행기로 재탄생하고 있다. 독특한 그림체로 풍경 스케치를 하고 있는 작가의 그림과, 감성이 담긴 글은 뛰어난 서정성을 배경으로 여행기와 그림의 만남이라는 장르적 특성뿐만 아니라 하나의 작품으로서도 유용하다.
오영옥 글·그림 / 샐터 발행



산적 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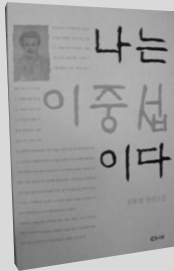
이 책은 어려웠던 시절을 배경으로 백운산 부근 두메산골의 조그만 초등학교 분교 아이들의 이야기이다. 아이들은 우연히 산에서 숨겨진 동굴을 발견하고 산채로 삼는다. '산채'는 '산적의 집'이다. 산적이 된 아이들은 서로 우정을 다지며, 아름다운 대자연 배경으로 모험을 펼친다.
정원석 글 / 한병호 그림 / (주)영림가디널 발행



트렌드를 창조하는 자 이노베이터

스스로 혁신적인 인재로 거듭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트렌드를 쫓기만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 이들을 위해 '트렌드를 창조하는 자 이노베이터'가 기획되었다. 김영세가 스스로 혁신적인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을 30가지 항목으로 명쾌하게 정리해준다.
김영세 지음 / 랜담하우스중앙 발행

나는 이중섭이다



이 소설은 이중섭의 생애와 그의 위작을 그리는 자를 추적하는 이야기이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살았던 그의 생애와는 달리 그의 사후 그가 그린 그림은 고가로 거래된다. 그런데 이중섭의 그림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위작으로 의심되는 작품들이 수도룩하다. 시인 구상과 김광림은 그와 동향으로 그가 북한에서 그린 그림까지도 소상하게 아는 이들인데 구상 시인은 작고했고 김광림 시인은 아직 생존해 있다. 작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두 시인을 인터뷰해서 자료를 구했다. 그리고 물어 물어 위작 전문 화가를 만나 위작의 세계에 대한 자료

를 얻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이 소설이다. 위작이 어떻게 탄생하는가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들어있다. 또한 이 책은 이중섭의 일대기를 따라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긴장감을 띄는 이야기가 있다. 인간 이중섭이 험난한 시기를 거치면서 느꼈을 거침없는 감수성을 내포하고 있다. 타임머신의 타이머를 어느 방향으로 돌리는가에 따라서 고뇌하는 이중섭을, 사랑에 빠진 이중섭을, 연인이 들끓는 이중섭을, 방황하는 이중섭을 만나는 묘하고 즐거운 재미도 선사한다.

김용범 지음 / 도서출판 다시 발행

예술 마을 17월의 새로운 책

※ 이 지면은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꾸며집니다.



삶의 길 힌구름의 길

인도를 비싼 열 사람 중 한 사람 이자 지성인이자 구도자인 오소가 중국 고대의 사상가이자 도가의 대표주자인 장자의 강의를 해석한 책이다. 장자의 가르침을 인용하고 그에 대한 오소의 설명이 곁들여진다. 약간 어렵고 무거워질 수 있는 글을 에피소드와 함께 소개해 지루하지 않다.

오소 라즈니쉬 지음 / 류시화 옮김 / 청아출판사 발행



낭만주의 선언-문학에 관한 하나의 철학

문학에 관한 하나의 철학이라는 부제가 붙은 방대한 예술론, 아일랜드의 문학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11편의 에세이와 그녀의 사상을 애증해 주는 한편의 단편소설로 구성된 작품이다. 이 책은 문학의 기본원칙을 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의 객관적 평가기준, 삶에 있어서의 예술의 기능과 의미 등 예술 일반에 대해서 폭넓게 다루고 있다.

아인 랜드 지음 / 이철 옮김 / 도서출판 열림원 발행



Soul in Seoul a cultural journey -외국인에게 선물하는 서울의 멋

이 책에는 두 발로 곳곳을 다니며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한국문화의 핵심과 비공식적인 뒷이야기들이 생생한 사진들과 어우러져 보기 좋게 담겨 있다. 외국인에게 선물하기에 안성맞춤인 책, 더불어 한국인 자신에게도 뿌듯함과 부끄러움을 함께 느끼게 해주는 책.

최준식 글 / 박정훈 · 박준석 사진 / 도서출판 동아시아 발행



꽃들의 웃음판-한시로 읽는 사계절의 시정

한문학을 통해 우리 가슴속에 스민 정서의 원형을 탐구하여 옛날과 지금의 간격을 건너뛰어온 정민 교수한양대 국문과가 한시에 나타난 네 계절의 정취를 유려한 문체로 엮어냈다. 무심한 듯 흘러가는 계절 속을 살이간 선조들의 삶과 그들이 본 세상에 한시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다.

정민 지음 / 감점선 그림 / (주)사계절출판사 발행



엄마의 나라

김옥애의 새로운 동화 '엄마의 나라'는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한국인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현존(현존명 리차드 만스)이가 10살 때 처음 한국을 찾아와 겪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김옥애 지음 / 이지선 그림 / 창개구리 발행



셰익스피어의 시대 (THE AGE OF SHAKESPEARE)

심도 있고 광범위한 커모드의 학문에 필적하는 그의 명료한 글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이 책은 엘리자베스 왕조 시대의 사회, 정치, 문화적 상황을 조망하며 그의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집필연도에 따라서 분석한다.

프랭크 커모드 지음 / 한은경 옮김 / 을유문화사 발행



나의 디자인 이야기

'나의 디자인 이야기'는 하나의 발상이 구체적인 형태가 되기까지의 모험담, 열정과 비전, 디자인 철학을 두루 담고 있는 생생한 현재진행형 보고서이자 통성한 아이디어 참고서다. 20년간 디자이너의 길을 걸어온 저자가 자신의 체험을 작품과 더불어 육성으로 들려주는 훌륭한 디자인 강의이기도 하다.

이나미 지음 / 마음산책 발행



어둠의 저편

'어둠의 저편'은 하루키의 종전의 작품들과는 크게 다른 소설적 구조와 주제를 비롯하여, 두드러지게 참신한 작품 분위기와 표현 기법을 보여주고 있어, 하루키 문학의 새로운 전환을 알리는 획기적인 작품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 임홍빈 옮김 / (주)문학사상사 발행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들 『2005년 우리가 만든 책』(전 8권)



발자국소리가큰아이들 발행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들'은 무엇인가 보여주려는 의욕을 가득 담고 작업실을 들어서서 아이는 총계를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부터 활기차다는 뜻, 말 그대로 의욕과 창의력이 넘치는 어린이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지향하며 지은 이름이다. 현재 600여 명의 아이들이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과 마포, 강남원에서 수강하고 있으며, 이 아이들중 400여 명 아이들의 작품을 엮어 만들었다. 2002~4년 어린이날을 전후로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에서 작품 전시회도 열었다. 저승사자를 만난 트유티, 먹을 게 없는 숲 속 동물에게 주는 도깨비의 선물은 바로 쿡쿡에서 나오는 불량식품. 사람이 없는 나라 속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똥, 방귀, 공룡, 전쟁, 요정..... 아이들만의 거침 없는 생각들이 모두 이 책 속의 주인공들이다. 아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지어낸 이야기들에는 아이들만의 입말이 살아 있어서 어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작품도 있다.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것도 이 책을 읽으며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소망, 재치가 담겨 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보물인 것이다.